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5 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사목회장 : 이광하 하상 바오로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일 기도)
 주일, 13:30, 교육관(오라나 센터)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van. NSW

※ 교황님 기도지향(7월)

보편 지향: 사회적 우정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대화와 우정을 가꾸어 나가는 장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항상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성자께서는 사랑의 신비와 인간의 존엄을 밝혀 주십니다. 우리가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매여, 성령으로 가득 차, 믿음과 실천으로 형제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청합시다.

제1독서 아모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7,12-15

<가서 내 백성에게 예언하여라.>

화답송 시편 85(84),9ㄱ-ㄷ과 10.11-12.13-14(◎ 8 참조)

◎ 주님, 저희에게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3-14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에페 1,17-18 참조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7-13

<예수님께서 그들을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영성체송 시편 84(83),4-5 참조

주님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둥지를 틀어 거기에 새끼를 치나이다.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행복하옵니다, 당신 집에 사는 이들! 그들은 영원토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영성체 후 묵상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뜻을 알고 그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례상식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비한 미사(알쓸신미) |

말씀 전례 Part 1-1 독서

미사 때 하느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이면 그 안에 얼마나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한지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우선 주일 미사의 말씀 전례는 '**제 1 독서 - 화답송 - 제 2 독서 - 복음 환호송 - 복음 - 강론 - 신앙고백(신경) - 보편 지향 기도(신자들의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독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전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독서와 이에 우리가 화답하는 노래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구원의 신비를 보여 주시고 영적인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침묵과 노래로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느님께서 미사 전례 중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다시 말해 살아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마음을 비우고 경건한 자세로 하느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 찬미하는 응답을 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전례는 하느님과 우리, 나와의 대화 형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주일에 듣는 하느님의 말씀인 독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일과 대축일에는 예언서(구약), 사도서(신약), 복음으로 된 세 독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독서를 통해 하느님의 오묘한 신비에 따라 계속 이루어지는 구원의 업적을 배우게 됩니다. 이 독서와 복음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의 교회력에 따라 3년 주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평일 독서는 2년 주기로 나누어져 있고 평일 복음은 매년 같습니다. 결국 3년 동안 구약의 말씀과 복음을 포함한 신약의 말씀을 거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서들은 전례서의 규범대로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부활 시기에는 교회 전통에 따라 구약 성경 대신에 사도행전에서 독서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 제자들이 초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며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 있기에 전례 시기에 맞춰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 제 6주일 제 1 독서를 보면 이러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독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화답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교육지원팀, <http://www.foryouth.or.kr/>]

| 연중 제 15 주일 주간실천 |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①**

스티로폼, 플라스틱 컵·병·칼·스푼·포크·빨대 등 일회용 제품 사용하지 않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 **피조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②**

재활용 쇼핑백 사용하기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용기 재활용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8CK+〉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World Day for Grandparents and the Elderly)

지난 1월 31일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는 7월 25일을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정하고 주제 말씀을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구절 “내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로 정했습니다. 교황청 평신도와 가정과 생명에 관한 부서는 성명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교황님이 직접 선택하신 이 주제는 주님과 교회가 모든 어르신의 삶 곁에 있다는 사실을, 특히 코로나 19 대유행의 어려운 시기에 그들 곁에 더욱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젊은이와 어르신이 서로 버팀목이 돼 주는 상호 관계 안에서 드러낼 수 있는 친밀감과 희망의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조부모나 어르신의 삶에 함께하기 위한 사명이 손주들이나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부모와 어르신에게도 복음화 사명, 선포의 사명, 기도의 사명, 젊은 세대를 신앙으로 인도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 보내기]

우리 공동체에서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 7월 25일 주일미사 중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를 보냅니다. 미리 제작한 엽서에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출하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은 미리 받으실 분의 주소와 내용을 준비하여 작성 후 교무금함에 넣으면 됩니다. 교우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내 마음에 와 닿는 성경구절 나누기 모집(제출 마감일 : 7월 11일(주일))

[사용 양식] 성당 입구에 비치 / [제출] 교무금함(매주 주보에 제출자 공지, 소공동체별 최종 집계)

[제출자-7월 4일(주일)] 방진선 요안나(마르코회)

교무금 납부 확인서 배포(7월 4일(주일)부터) 및 공동체 재정보고(7월 18일(주일)) (문의 : 이지영 아녜스)**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1)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모경을 바친 후 ‘평화의 모후,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를 바칩니다.

2) ‘평화를 구하는 기도’ 또는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를 함께 바칠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설정 10주년 기념 기도 및 감사 영적 예물

[성경 필사] 참여를 희망하시는 교우분들은 소공동체장에게 성경필사 노트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100일 기도 및 영적 예물표, 5월 31일(월)~9월 7일(화)] 성당 입구 비치 (문의 : 김우경 가브리엘라)

‘성 요셉의 해’(2020.12.08~2021.12.08) 특별 대사 안내

‘매월 19일’과 라틴 전례에서 성인을 기리는 ‘매주 수요일’에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고해성사와 영성체를 하고, 교황의 지향에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일대기 도서 판매(16불, 문의 : 각 소공동체장 또는 이민정 글라라)**어린이 전례 등록 (문의 : 안윤경 소화데레사)**

♡ 김수연, 김수진, 박순덕, 정정희 베로니카(12일), 하현수 헨리코(13일)의 영명 축일을 축하합니다.

※ 교구의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10일(토)부터 성당 및 교육관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습니다. 다만, ACT 방역당국의 권고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성당에 오시는 교우분들은 대중교통 이용 중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황님과 함께 하는 '백신 나눔 운동' 참여 방법

1. 공동체 교무금 계좌로 납부 시 'Vaccine' 기재 / 교무금 봉투에 '백신' 기재 후 교무금함에 납부
2. [참여기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 주년 희년 종료(올해 11 월 27 일)까지

□ 봉사자 모집 (문의)

- 청소년 복사 (김수현 수산나) / 미사 해설 (김우경 가브리엘라) / 어린이 전례 (안윤경 소화데레사)
- 주보, 웹사이트, 사회복지분과 (허준 안토니오) / 예비신자 교리반 (민선화 테오도라)

□ 소공동체 구성 및 활동 소개 (문의 : 소공동체장, 이민정 글라라)

소공동체	요한회	루카회	마르코회	마태오회
주요 구성원	50대	40대	30대	미혼, 커플, 청년
주요 활동	매월 세번째 주일 미사 후 말씀나눔	매월 두번째 주일 미사 후 말씀나눔	가정별로 돌아가며 말씀나눔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말씀나눔/친목활동
조장	서은주 데레사	주정자 루치아	방진선 요안나	최재원 스테파노

□ 굿뉴스(GoodNews) 모바일 매일 복음쓰기 방법

2020 년 11 월 부터 시작한 가톨릭 어플의 "굿뉴스 모바일 매일 복음쓰기"가 굿뉴스 어플에서도 가능하게 개선되었습니다.

굿뉴스 어플 상단의 "굿뉴스 매일 복음쓰기"를 클릭하시면 매일복음쓰기에 들어가실수 있습니다. 복음쓰기의 내용은 가톨릭 어플과 연동되며 편하신 어플로 접속해서 쓰시면 됩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6 월 27 일	성인 57 아이 27	7 월 4 일	성인 44 아이 19
----------	-------------	---------	-------------

□ 우리들의 정성 (7 월 3 일(토)~9 일(금))

구민식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광하	이지영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주진호	진윤기	한상지

교무금 : \$815(16가정) | 주일 봉헌금 : \$255 | 감사헌금 : \$200(허준)

백신 나눔 운동 모금 : \$4,350(이광하, 이선영, 이재영, 주진호, 익명1) / (총액 : \$5,780)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7 월 11 일, 연중 제 15 주일) 이국원 필립보 네리, 김미현 보나
(7 월 18 일, 연중 제 16 주일, 농민 주일) 주정자 루치아, 공성은 루실라
- 체온측정·방명록·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1 일) 루카회, (18 일) 마르코회
- 미사 후 간식나눔(격주) : ※ 코로나 19 감염 방지를 위해 일시 중단

□ 교구 코로나 19 방역지침 안내(QR 코드 사용 의무화 / 2 제곱미터 거리두기 지속 적용)